

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들과 같이 우리로 그렇게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외치게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 된 고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기도'를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외치는 말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분과의 대화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기쁨과 아픔과 삶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주물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강경에 따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의 따뜻함으로, 때로는 열정으로, 때로 자유 함으로 그렇게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되신 그분에게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의 '아바'(아람어)는 친밀감의 단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부르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두 팔로 안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아바, 나를 직접 눈 앞에서 바라보시는 아바와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경을 가리킵니다)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 4:6)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 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의 사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모호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성경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예가 아닌 아들로써, 더 이상 몽학선생, 개인교사 아래 있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기한이 차 자격이 있는 자녀로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갈 4:7)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모든 영광을 받게 될 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마치 '하나뿐인 아들'처럼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진영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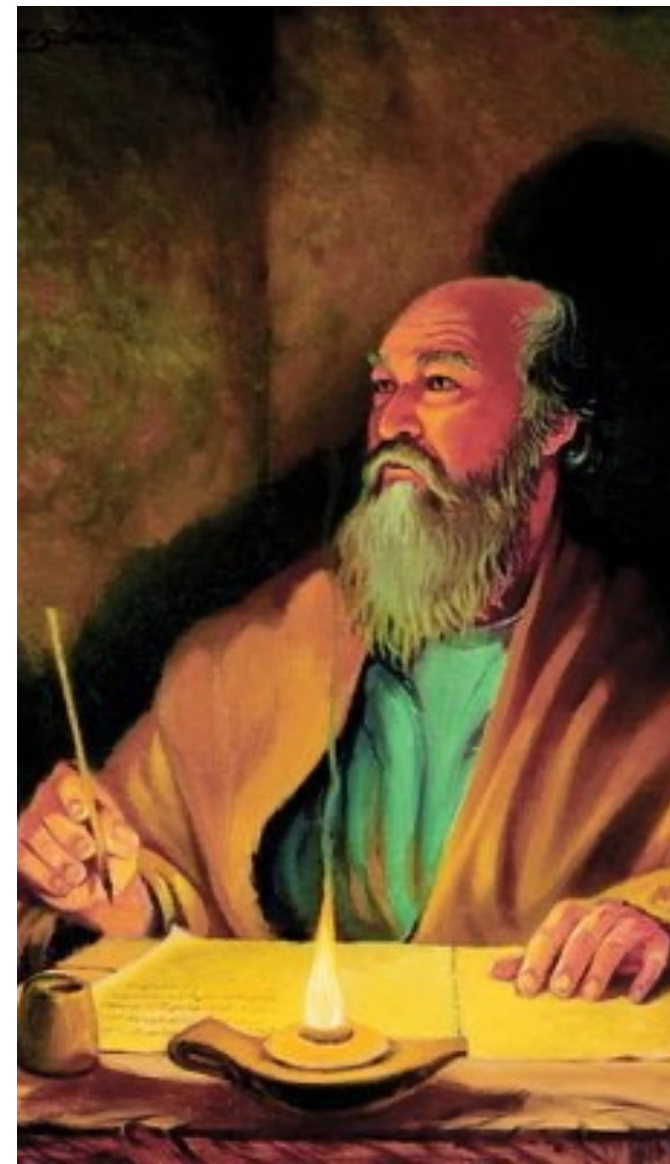
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강해(12)

Galatians 4:1-7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9월 21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1 때가 차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의 신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어린 아이가 엄청난 상속을 물려받는 것에 이를 비유합니다. 내가 상속자라고 해도, 어렸을 때는 아무런 상속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걸 면에서 어린아이는 종이나 노예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버지가 정해 놓은 기한이 찰 때까지는 아들과 종은 다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아들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면에서 이 둘은 다름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해도, 어린 아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힘이나 권한이 없고, 오직 후견인이나 보호자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한이 차면, 그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 놓은 그 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새번역, 갈 4:1-3)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간 실존이 '종', '노예'와도 같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의 이미지로 창조된 우리이지만, 우리의 실존은 '노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한이 찰 때까지, 기한이 차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 인간 모두는 종의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갈 4:4)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한이 찰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될 때가 왔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이제 홀로서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여자에게서' 나신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

2 그리스도의 속량

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법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법이든, 도덕 법이든, 사회의 규범이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주인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법 아래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법의 노예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킬 의무와 짐은 너무 무거운데,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 613개의 조항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는 실존, 그래서 우리가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난 하나님의 아들, 참 인간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즉, 법 아래에 매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 문자의 법을 지켜야 하는 실존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했습니다. 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 된 자들 중 된 자들을 위해, 단번에 그들을 사는 모든 값을 지불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그 법에게 완전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아들로서의 권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종이나 노예였던 우리가 입양을 받아, 아들의 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갈 4:5)

자녀의 자격, 즉 아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3 종에서 아들로

아들로 입적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고대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는 아이 없는 부유한 남자는 보통 자신의 노예나 종을 아들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종을 입양하여 아들로 삼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상속을 다 물려받을 자격이 되고, 그의 모든 법적 특권을 얻게 됩니다. 마치 원래 아들 된 자들이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서부터 노예였던 자가, 이제 주인이 그를 아들로 삼아 주며 아들의 신분을 누리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 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아들로, 종에서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고대의 노예시장으로 시간 여행을 해봐야 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가 속량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대 노예 매매법에서 노예가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가치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또 성경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느낄